

# 주부신행담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만났다 ⑧

**오**래 전부터 기회가 되면 하고 싶었던 사진공부를 시작했다. 이리 저리 바쁜 틈틈이 가방을 메고 출근 떠나 방방곡곡을 내 카메라에 담아 보곤 한다. 올해 초에도 새천년 새해의 일출을 찍기 위해 바닷가를 여러 번 찾았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해의 모양도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어떤 날은 떠오르는 해를 놓치고 집에 와 보니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해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하루는 아침 기도를 일찍 끝내고 바닷가로 가서 생각없이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아! 이것이 일출을 위한 준비인가!' 뽕겨 울든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고 그 가운데 붉은 덩어리의 공룡처럼 너무 성스러웠고 경건함까지 느껴졌다. 어느덧 큰 불덩어리가 불속 수평선 위에 올라 앉으면서 출렁이는 불꽃까지 잡재우는 듯했다. 이렇하여 일출이라 하는가. 가슴으로 밀려드는 환희를 삼키고 셔터를 열심히 눌렀다.

그때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 놓고 항상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 그 붉은 용트림을, 그 공간적인 현상의 느낌을 삼키어 사진으로도 전달할 수 없어 안타깝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던 스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일도 자기가 경험해야만 알 듯 글로써 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글을 쓰면서도 내 미친한 수행이 전달될까 걱정이 된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된다. 할머니를 따라서 집을 찾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도 주지스님의 따스한 보살핌이 좋았던지 절마당이 우리집보다 좋게 보였다. 커다란 가마에서 풍기는 구

수한 밥 냄새가 좋았고, 보살님이 주시는 누룽지 맛과 내 키만한 독에서 꺼내 온 김치 맛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물독을 채우는 행자의 힘든 한 손소리로 재미있었으니, 참 어린아이다운 천진한 시선으로만 물을 대했던 것 같다.

그후 난 불교에 매료됐다. 불교공부를 한답시고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여 혼란 적도 많았다. 한 때는 출가를 생각할 적도 있었다. 비록 걸로 드러내진 못했지만 내 맘 속 깊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 내가 고민해왔던 것과는 다른 출가(?)를 하게 되었다. 신혼여행 중에 육포 해냉대의 깃발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남편도 그 후로 불교공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2녀 1남을 두었다. 두 딸은 이미 모두 커서 대학에 다니고 늦게 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다. 큰딸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이지 싶다. 울산불교 조계종 사찰연합회에서 불교교육원을 개원했다. 알고 있는 불자 몇 분께서 함께 공부하기를 권유했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한 공부 고개를 숙이지 않아 몇 번의 입학 기회를 그냥 스쳐 보냈다. 사실 속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았으나 보다. 남편과 입학하고 보니 벌써 6기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입학하고 정말 열심히 다녔다. 결석한 번 없이 초삼반 발심반 1년을 끝내고 경전반 1년까지 마치게 되었다. 졸업하는 날 회색 바지에 조끼까지 입고 꽃다발을 한아름 안은 채 법우들과 함

께 사진을 찍었고 그때 찍은 기념사진을 가끔 꺼내 보면서 입학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지금은 17기 교육생이 공부 중인데 복잡한 생활 속이지만 바쁜 걸음으로 달려와 강의 들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믿음은 의심을 끊어주고 지혜와 덕을 길러 주고 부처가 되는 공덕을 쌓게 하여 나로 하여금 부처를 이루게 하는 도의 근본이라는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은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보게 되니 팔정도, 바르게 보아라(正見)를 실천하게 되므로 세상 살이에서 바로 보지 못해 생기는 오해



그림 · 이준석

##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것 아니니 주위사람에 베풀고 편안케하며 말은 일 최선 다하며 살고싶다

가 적게 씀을 깨달았다. 지난해에 교육원에서는 경전반을 새롭게 만들어 상반기에는 <육조단경>을, 하반기에는 <원각경> 공부를 하였는데 문경 김홍사 주지스님께서 1년간을 울산까지 버스를 타고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스님은 장승 밖에서 나오는 땀냄새를 강의중에 교육생이 느낄까봐 가서 장삼 판 보자기 속에 항상 향을 넣고 다니셨다. 향내가 은은히 흐르는 모습과 호탕한 웃음 한자락으로 스님은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던져 주셨다.

이런 좋은 만남이 다른 모든 이에게도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인연은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무궁무진한 만남의 연속이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배웠다. 나의 존재는 수많은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열매가 되었다가 아내가 되고, 친구도 되고 동생도 형님도 된다. 스님 앞에선 불자가 된다.

최근 입학하신 탄성 큰스님의 말씀을 옮겨 본다. "미움이 많은 사람은 귀한 인연을 가꾸며 살고, 마음이 신란하여

탐욕스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외면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셨는데 되새겨 볼 만하다. 자랑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서 "입을 지키고 마음을 모아 몸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이와같이 행하는 자 능히 도를 이루리라"라는 구절을 마음깊이 새겨 아주 좋아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도리와 마음을 고요함에 이르게 하여 번뇌 망상 속의 잡자는 불성을 일깨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

지난 주에는 발심반 강의를 해인사 스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환경이나 또는 나 아닌 외부의 간섭에 의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오르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초하루나 보름에 활에 가게 되는데 기도가 끝나면 스님께서 하시는 축원 중에 재물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해달라는 대목이 있다. 스님께서, 간절히 축원해 달라 함은 탐심을 적게 하라는 뜻이 있고 명예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진심을

낮추려는 것이고 수명을 길게 하려는 마음은 치심을 짧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려 주셨다. 그리고 단순히 내 복만 빌지 말고 그 깊은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남보다도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마땅히 하며 살고 있다. 지나친 기대심과 시기심 때문에 아날까 생각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베풀면서 사느냐 주위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이롭게 하느냐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삶의 주체는 바로 자신인 것이다. 연술자가 드라마를 만들고 연극자가 연기를 하듯이 나도 내가 맡은 배역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한마당 잘 살다 잘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익힌 불법을 지키고 받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머리 위에 얹어 다니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치를 깨달아 불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보다 더 좋은 반려자가 또 있었나 싶다.

김민화(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작은키 포키 하지마세요**

키가 쑥쑥!

키가 유전이 라고요?

염양 31%	유전 23%
운동 20%	환경 16%
기타 10%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제조원: (株) 開豐洋行 판매원: 키돌이성장원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는?

본-서울 자연과학대학 천연물 화학 연구실

개발역사 1979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2042년 2043년 2044년 2045년 2046년 2047년 2048년 2049년 2050년 2051년 2052년 2053년 2054년 2055년 2056년 2057년 2058년 2059년 2060년 2061년 2062년 2063년 2064년 2065년 2066년 2067년 2068년 2069년 2070년 2071년 2072년 2073년 2074년 2075년 2076년 2077년 2078년 2079년 2080년 2081년 2082년 2083년 2084년 2085년 2086년 2087년 2088년 2089년 2090년 2091년 2092년 2093년 2094년 2095년 2096년 2097년 2098년 2099년 2100년 2101년 2102년 2103년 2104년 2105년 2106년 2107년 2108년 2109년 2110년 2111년 2112년 2113년 2114년 2115년 2116년 2117년 2118년 2119년 2120년 2121년 2122년 2123년 2124년 2125년 2126년 2127년 2128년 2129년 2130년 2131년 2132년 2133년 2134년 2135년 2136년 2137년 2138년 2139년 2140년 2141년 2142년 2143년 2144년 2145년 2146년 2147년 2148년 2149년 2150년 2151년 2152년 2153년 2154년 2155년 2156년 2157년 2158년 2159년 2160년 2161년 2162년 2163년 2164년 2165년 2166년 2167년 2168년 2169년 2170년 2171년 2172년 2173년 2174년 2175년 2176년 2177년 2178년 2179년 2180년 2181년 2182년 2183년 2184년 2185년 2186년 2187년 2188년 2189년 2190년 2191년 2192년 2193년 2194년 2195년 2196년 2197년 2198년 2199년 2200년 2201년 2202년 2203년 2204년 2205년 2206년 2207년 2208년 2209년 2210년 2211년 2212년 2213년 2214년 2215년 2216년 2217년 2218년 2219년 2220년 2221년 2222년 2223년 2224년 2225년 2226년 2227년 2228년 2229년 2230년 2231년 2232년 2233년 2234년 2235년 2236년 2237년 2238년 2239년 2240년 2241년 2242년 2243년 2244년 2245년 2246년 2247년 2248년 2249년 2250년 2251년 2252년 2253년 2254년 2255년 2256년 2257년 2258년 2259년 2260년 2261년 2262년 2263년 2264년 2265년 2266년 2267년 2268년 2269년 2270년 2271년 2272년 2273년 2274년 2275년 2276년 2277년 2278년 2279년 2280년 2281년 2282년 2283년 2284년 2285년 2286년 2287년 2288년 2289년 2290년 2291년 2292년 2293년 2294년 2295년 2296년 2297년 2298년 2299년 2300년 2301년 2302년 2303년 2304년 2305년 2306년 2307년 2308년 2309년 2310년 2311년 2312년 2313년 2314년 2315년 2316년 2317년 2318년 2319년 2320년 2321년 2322년 2323년 2324년 2325년 2326년 2327년 2328년 2329년 2330년 2331년 2332년 2333년 2334년 2335년 2336년 2337년 2338년 2339년 2340년 2341년 2342년 2343년 2344년 2345년 2346년 2347년 2348년 2349년 2350년 2351년 2352년 2353년 2354년 2355년 2356년 2357년 2358년 2359년 2360년 2361년 2362년 2363년 2364년 2365년 2366년 2367년 2368년 2369년 2370년 2371년 2372년 2373년 2374년 2375년 2376년 2377년 2378년 2379년 2380년 2381년 2382년 2383년 2384년 2385년 2386년 2387년 2388년 2389년 2390년 2391년 2392년 2393년 2394년 2395년 2396년 2397년 2398년 2399년 2400년 2401년 2402년 2403년 2404년 2405년 2406년 2407년 2408년 2409년 2410년 2411년 2412년 2413년 2414년 2415년 2416년 2417년 2418년 2419년 2420년 2421년 2422년 2423년 2424년 2425년 2426년 2427년 2428년 2429년 2430년 2431년 2432년 2433년 2434년 2435년 2436년 2437년 2438년 2439년 2440년 2441년 2442년 2443년 2444년 2445년 2446년 2447년 2448년 2449년 2450년 2451년 2452년 2453년 2454년 2455년 2456년 2457년 2458년 2459년 2460년 2461년 2462년 2463년 2464년 2465년 2466년 2467년 2468년 2469년 2470년 2471년 2472년 2473년 2474년 2475년 2476년 2477년 2478년 2479년 2480년 2481년 2482년 2483년 2484년 2485년 2486년 2487년 2488년 2489년 2490년 2491년 2492년 2493년 2494년 2495년 2496년 2497년 2498년 2499년 2500년 2501년 2502년 2503년 2504년 2505년 2506년 2507년 2508년 2509년 2510년 2511년 2512년 2513년 2514년 2515년 2516년 2517년 2518년 2519년 2520년 2521년 2522년 2523년 2524년 2525년 2526년 2527년 2528년 2529년 2530년 2531년 2532년 2533년 2534년 2535년 2536년 2537년 2538년 2539년 2540년 2541년 2542년 2543년 2544년 2545년 2546년 2547년 2548년 2549년 2550년 2551년 2552년 2553년 2554년 2555년 2556년 2557년 2558년 2559년 2560년 2561년 2562년 2563년 2564년 2565년 2566년 2567년 2568년 2569년 2570년 2571년 2572년 2573년 2574년 2575년 2576년 2577년 2578년 2579년 2580년 2581년 2582년 2583년 2584년 2585년 2586년 2587년 2588년 2589년 2590년 2591년 2592년 2593년 2594년 2595년 2596년 2597년 2598년 2599년 2600년 2601년 2602년 2603년 2604년 2605년 2606년 2607년 2608년 2609년 2610년 2611년 2612년 2613년 2614년 2615년 2616년 2617년 2618년 2619년 2620년 2621년 2622년 2623년 2624년 2625년 2626년 2627년 2628년 2629년 2630년 2631년 2632년 2633년 2634년 2635년 2636년 2637년 2638년 2639년 2640년 2641년 2642년 2643년 2644년 2645년 2646년 2647년 2648년 2649년 2650년 2651년 2652년 2653년 2654년 2655년 2656년 2657년 2658년 2659년 2660년 2661년 2662년 2663년 2664년 2665년 2666년 2667년 2668년 2669년 2670년 2671년 2672년 2673년 2674년 2675년 2676년 2677년 2678년 2679년 2680년 2681년 2682년 2683년 2684년 2685년 2686년 2687년 2688년 2689년 2690년 2691년 2692년 2693년 2694년 2695년 2696년 2697년 2698년 2699년 2700년 2701년 2702년 2703년 2704년 2705년 2706년 2707년 2708년 2709년 2710년 2711년 2712년 2713년 2714년 2715년 2716년 2717년 2718년 2719년 2720년 2721년 2722년 2723년 2724년 2725년 2726년 2727년 2728년 2729년 2730년 2731년 2732년 2733년 2734년 2735년 2736년 2737년 2738년 2739년 2740년 2741년 2742년 2743년 2744년 2745년 2746년 2747년 2748년 2749년 2750년 2751년 2752년 2753년 2754년 2755년 2756년 2757년 2758년 2759년 2760년 2761년 2762년 2763년 2764년 2765년 2766년 2767년 2768년 2769년 2770년 2771년 2772년 2773년 2774년 2775년 2776년 2777년 2778년 2779년 2780년 2781년 2782년 2783년 2784년 2785년 2786년 2787년 2788년 2789년 2790년 2791년 2792년 2793년 2794년 2795년 2796년 2797년 2798년 2799년 2800년 2801년 2802년 2803년 2804년 2805년 2806년 2807년 2808년 2809년 2810년 2811년 2812년 2813년 2814년 2815년 2816년 2817년 2818년 2819년 2820년 2821년 2822년 2823년 2824년 2825년 2826년 2827년 2828년 2829년 2830년 2831년 2832년 2833년 2834년 2835년 2836년 2837년 2838년 2839년 2840년 2841년 2842년 2843년 2844년 2845년 2846년 2847년 2848년 2849년 2850년 2851년 2852년 2853년 2854년 2855년 2856년 2857년 2858년 2859년 2860년 2861년 2862년 2863년 2864년 2865년 2866년 2867년 2868년 2869년 2870년 2871년 2872년 2873년 2874년 2875년 2876년 2877년 2878년 2879년 2880년 2881년 2882년 2883년 2884년 2885년 2886년 2887년 2888년 2889년 2890년 2891년 2892년 2893년 2894년 2895년 2896년 2897년 2898년 2899년 2900년 2901년 2902년 2903년 2904년 2905년 2906년 2907년 2908년 2909년 2910년 2911년 2912년 2913년 2914년 2915년 2916년 2917년 2918년 2919년 2920년 2921년 2922년 2923년 2924년 2925년 2926년 2927년 2928년 2929년 2930년 2931년 2932년 2933년 2934년 2935년 2936년 2937년 2938년 2939년 2940년 2941년 2942년 2943년 2944년 2945년 2946년 2947년 2948년 2949년 2950년 2951년 2952년 2953년 2954년 2955년 2956년 2957년 2958년 2959년 2960년 2961년 2962년 2963년 2964년 2965년 2966년 2967년 2968년 2969년 2970년 2971년 2972년 2973년 2974년 2975년 2976년 2977년 2978년 2979년 2980년 2981년 2982년 2983년 2984년 2985년 2986년 2987년 2988년 2989년 2990년 2991년 2992년 2993년 2994년 2995년 2996년 2997년 2998년 2999년 3000년 3001년 3002년 3003년 3004년 3005년 3006년 3007년 3008년 3009년 3010년 3011년 3012년 3013년 3014년 3015년 3016년 3017년 3018년 3019년 3020년 3021년 3022년 3023년 3024년 3025년 3026년 3027년 3028년 3029년 3030년 3031년 3032년 3033년 3034년 3035년 3036년 3037년 3038년 3039년 3040년 3041년 3042년 3043년 3044년 3045년 3046년 3047년 3048년 3049년 3050년 3051년 3052년 3053년 3054년 3055년 3056년 3057년 3058년 3059년 3060년 3061년 3062년 3063년 3064년 3065년 3066년 3067년 3068년 3069년 3070년 3071년 3072년 3073년 3074년 3075년 3076년 3077년 3078년 3079년 3080년 3081년 3082년 3083년 3084년 3085년 3086년 3087년 3088년 3089년 3090년 3091년 3092년 3093년 3094년 3095년 3096년 3097년 3098년 3099년 3100년 3101년 3102년 3103년 3104년 3105년 3106년 3107년 3108년 3109년 3110년 3111년 3112년 3113년 3114년 3115년 3116년 3117년 3118년 3119년 3120년 3121년 3122년 3123년 3124년 3125년 3126년 3127년 3128년 3129년 3130년 3131년 3132년 3133년 3134년 3135년 3136년 3137년 3138년 3139년 3140년 3141년 3142년 3143년 3144년 3145년 3146년 3147년 3148년 3149년 3150년 3151년 3152년 3153년 3154년 3155년 3156년 3157년 3158년 3159년 3160년 3161년 3162년 3163년 3164년 3165년 3166년 3167년 3168년 3169년 3170년 3171년 3172년 3173년 3174년 3175년 3176년 3177년 3178년 3179년 3180년 3181년 3182년 3183년 3184년 3185년 3186년 3187년 3188년 3189년 3190년 3191년 3192년 3193년 3194년 3195년 3196년 3197년 3198년 3199년 3200년 3201년 3202년 3203년 3204년 3205년 3206년 3207년 3208년 3209년 3210년 3211년 3212년 3213년 3214년 3215년 3216년 3217년 3218년 3219년 3220년 3221년 3222년 3223년 3224년 3225년 3226년 3227년 3228년 3229년 3230년 3231년 3232년 3233년 3234년 3235년 3236년 3237년 3238년 3239년 3240년 3241년 3242년 3243년 3244년 3245년 3246년 3247년 3248년 3249년 3250년 3251년 3252년 3253년 3254년 3255년 3256년 3257년 3258년 3259년 3260년 3261년 3262년 3263년 3264년 3265년 3266년 3267년 3268년 3269년 3270년 3271년 3272년 3273년 3274년 3275년 3276년 3277년 3278년 3279년 3280년 3281년 3282년 3283년 3284년 3285년 3286년 3287년 3288년 3289년 3290년 3291년 3292년 3293년 3294년 3295년 3296년 3297년 3298년 3299년 3300년 3301년 3302년 3303년 3304년 3305년 3306년 3307년 3308년 3309년 3310년 3311년 3312년 3313년 3314년 3315년 3316년 3317년 3318년 3319년 3320년 3321년 3322년 3323년 3324년 3325년 3326년 3327년 3328년 3329년 3330년 3331년 3332년 3333년 3334년 3335년 3336년 3337년 3338년 3339년 3340년 3341년 3342년 3343년 3344년 3345년 3346년 3347년 3348년 3349년 3350년 3351년 3352년 3353년 3354년 3355년 3356년 3357년 3358년 3359년 3360년 3361년 3362년 3363년 3364년 3365년 3366년 3367년 3368년 3369년 3370년 3371년 3372년 3373년 3374년 3375년 3376년 3377년 3378년 3379년 3380년 3381년 3382년 3383년 3384년 3385년 3386년 3387년 3388년 3389년 3390년 3391년 3392년 3393년 3394년 3395년 3396년 3397년 3398년 3399년 3400년 3401년 3402년 3403년 3404년 3405년 3406년 3407년 3408년 3409년 3410년 3411년 3412년 3413년 3414년 3415년 3416년 3417년 3418년 3419년 3420년 3421년 3422년 3423년 3424년 3425년 3426년 3427년 3428년 3429년 3430년 3431년 3432년 3433년 3434년 3435년 3436년 3437년 3438년 3439년 3440년 3441년 3442년 3443년 3444년 3445년 3446년 3447년 3448년 3449년 3450년 3451년 3452년 3453년 3454년 3455년 3456년 3457년 3458년 3459년 3460년 3461년 3462년 3463년 3464년 3465년 3466년 3467년 3468년 3469년 3470년 3471년 3472년 3473년 3474년 3475년 3476년 3477년 3478년 3479년 3480년 3481년 3482년 3483년 3484년 3485년 3486년 3487년 3488년 3489년 3490년 3491년 3492년 3493년 3494년 3495년 3496년 3497년 3498년 3499년 3500년 3501년 3502년 3503년 3504년 3505년 3506년 3507년 3508년 3509년 3510년 3511년 3512년 3513년 3514년 3515년 3516년 3517년 3518년 3519년 3520년 3521년 3522년 3523년 3524년 3525년 3526년 3527년 3528년 3529년 3530년 3531년 3532년 3533년 3534년 3535년 3536년 3537년 3538년 3539년 3540년 3541년 3542년 3543년 3544년 3545년 3546년 3547년 3548년 3549년 3550년 3551년 3552년 3553년 3554년 3555년 3556년 3557년 3558년 3559년 3560년 3561년 3562년 3563년 3564년 3565년 3566년 3567년 3568년 3569년 3570년 3571년 3572년 3573년 3574년 3575년 3576년 3577년 3578년 3579년 3580